



불법 스포츠 도박에 멎드는 청소년들

가입 쉽고 24시간 베팅... 학생 사이 빠르게 확산 잃은 금액 메꾸려 배달 아르바이트 등 나서기도 도교육청 “예방교육·상담사 파견·현황조사 진행”

제주시에는 사는 고등학교생 A(18)군은 최근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금을 받는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다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잃었다. 평소 5만원 내외로 돈을 걸었지만 아시안게임 개최로 인해 스포츠 경기가 많이 열리자 도박의 횟수와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A군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계좌번호와 휴대전화만 있으면 별다른 인증 절차 없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며 “축구부터 농구, 야구, 컴퓨터게임 등 돈을 걸 수 있는 종목도

다양한 데다 스마트폰으로도 베팅을 할 수 있어 사실상 24시간 동안 도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군은 “도박자금은 부모님에게 받는 용돈이나 일주일에 2-3번 뛰는 배달 아르바이트로 충당하고 있다”며 “돈을 잃은 이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지만, 친한 친구들이 모두 빠져 있어 쉽게 벗어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B(18)군 역시 최근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졌다. SNS에 올라온 게시글을 통해 도박 사이트 주소를 알게됐

고, 가입 절차나 도박 방법이 간단해 금방 익힐 수 있었기 때문이다.

B군은 “농구 경기에서 첫 3점슛을 성공시키는 팀을 맞추는 도박으로 30만원을 따면서 빠지게 됐다”며 “스마트폰으로 베팅이 가능해 부모님은 내가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스포츠 도박 문제가 청소년에게까지 확산되면서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도내 중학교 43곳과 고등학교 28곳 학생 3만4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이버도박 설문 결과 불법도박 경험이 있는 학생은 응답자의 2.56%인 870명에 달했다.

실제 3일 제주시 이도2동의 한 PC방을 찾았더니 학생으로 보이는 4-5

명이 한 자리에 모여 버젓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살피고 있었다. 학생들은 이날의 경기 일정을 서로 공유하며 돈을 베팅할 경기를 결정하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청소년 도박이 만연하면서 교육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각 학교 선생님들에게 ‘도박 안내서’를 배포해 도박 수법을 인지시키는 한편 지난해 12월부터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함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제주 청소년 도박 문제가 어떤 상황인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울러 올 상반기 도내 중·고등학교생 4500명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완료했고, 상담사 파견과 연극 등 도박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은비기자 seb119@ihalla.com

서귀포시, 건설사 영업정지 소송 패소

제주지법 “예치금도 실질자본에 포함시켜 판단해야”

서귀포시가 ‘계약 예치금’을 자본금으로 간주하지 않고 건설업 등록기준 5억원을 기준으로 건설사 2곳에 대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건설업체 2곳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2016년 9월 30일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 국토교통부가 자본금 미달 의심업체를 통보하자 건설업 등록기준 5억원 미달 업체를 선정해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이들 업체는 건축물 관련 특허 보유 업체와 통상실시권 등 설정계약을 맺으면서 수억원대 예치금을 지급했다며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인 5억원을 초과한다고 주장했지만 서귀포시는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2016년 12월 16일 이들 업체에 대해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건설업체의 자본금 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 예치금도 실질자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서귀포시가 패소함에 따라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이현숙기자

제주 다문화가정 내 폭력 3년간 45건 발생

이재정 국회의원 현황자료 발표 “홍보·교육 등 안전망 구축 절실”

이재정 의원은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80%가 여성인 점을 감안했을 때 급증하는 다문화가정 내 폭력의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다문화가정 특성상 피해자가 폭력에 노출되더라도 신고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홍보와 교육은 물론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주내 결혼이민 및 귀화자는 2011년 2007명에서 2016년 11월 기준 3822명(남 579명·여 3243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송은비기자

이재정 의원은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80%가 여성인 점을 감안했을 때 급증하는 다문화가정 내 폭력의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제주주내 다문화가정 폭력 검거 건수는 45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23건에서 2016년 11건, 2017년 7건, 올해 6월까지 4건이

“콘크리트 블록공장 건설 전면 백지화” 촉구

합덕 신축반대 비상대책위

합덕 콘크리트 블록공장 신축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임웅주)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사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합덕에 건설 중인 대덕블록 공장은 공청회나 설명회 등 지역주민들의 의사는 완전히 무시된 채로 진행되고 있다”며 “공장 부지 500m 이내에 마을이 있고, 900m에는 초·중학교와 유

치원이 존재하지만 행정은 지역사회의 공동편익이 아닌 개인 사업자를 보호하는 적폐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합덕 콘크리트 블록공장 신축반대 비대위는 “이에 항명용 합덕리장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매일 공장부지 앞에서 공장 완전철폐를 목표로 릴레이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며 “아울러 오는 6일 오후 5시에는 집회를 개최해 애끓는 주민들의 의사를 표출 하겠다”고 예고했다.
송은비기자

“불법 점용한 공공도로 원상복구를”

서미모·시민연대 서명운동

서귀포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모임(공동대표 허정옥·윤봉택), 서귀포시민연대(상임대표 강영민)는 3일 오후부터 서귀포칼호텔이 불법으로 점용해 사익 추구를 위해 사용한 공공도로와 매립면적 없이 매립된 공유수면 구거(수로)에 대해 조속한 원상 복구를 촉

구하는 시민 청원 서명운동을 한다고 이날 밝혔다.

두 단체는 “서귀포시가 칼호텔의 33년 무단 점용에 대해 84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했을 뿐 지금까지도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원상 복구를 촉구하는 시민서명 운동을 전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조흥준기자 chi@ihalla.com



제주대학교 멀티미디어디자인과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갑질교수' 의혹에 대한 교무처의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이날 학내에서 거리 시위와 함께 서명운동에 나서며 해당 교수의 파면을 촉구했다. 강희민기자

“제주대 갑질교수 조사결과 수용 못해”

대책위, 학내시위·서명·인권위 진정서 제출 등 추진 대책측 “이의제기 수용... 수사외되는 총장이 결정”

제주대학교 멀티미디어디자인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갑질교수' 의혹에 대한 대학 교무처의 조사결과에 크게 반발, 학내에서 거리 시위와 함께 서명운동에 나서며 해당 교수의

파면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특히 “조사결과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면 솜방망이 처벌은 당연하다”라고 주장,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사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

3일 정문 앞을 출발, 거리 시위에 나선 대책위는 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무처의 조사결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인권센터, 연구윤리위원회, 교무처 등 3개 부서에서 조사가 진행됐는데 교무처만 늦게 통보됐고 이의제기도 불가하다”라며 “내부 인사로만 구성된 조사인내다 학생

본 광고는 사진심의필 2007-GN1-25-0147

소리섬 보청기
제주시 삼도1동 507-3(2층)
TEL.753-5347

① 소리섬 디지털 보청기는 미국 스타키와 마이크로텍사의 제품을 취급합니다.
② 소리섬 디지털 보청기는 고객의 청력에 적합한 올바른 보청기 상담 및 A/S를 책임집니다.

■ 신경성, 노인성, 소음성 난청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무료 청력검사 및 방문 상담 가능

ORISEM 한국병원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완벽방수 내구성보강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1.시공전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주책 맞춤형디자인 시공후 시공전 시공전

완벽한방수 단열소재 맞춤형디자인 2중복합단열 맞춤형디자인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특허공법·디자인방수·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제주점 (064)743-0485
서귀포점 (064)762-0485
H.P 010-3421-8204

검색창에 이파엘지 ▶ 클릭해보세요.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